

오피니언

다산포럼

김민환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것이 광고다. 광고가 없다면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알릴 수 없고 소비자는 제품에 대한 기초 정보를 얻을 수 없다.

광고의 이런 오묘한 원리 때문에 광고주의 광고 판매에도 책임과 윤리가 따른다. 광고주가 정치적인 이유로 매체를 선별한다면 매체 역시 광고주에 대한 보도에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광고주협회를 손대서는 안 된다

주가 매체를 차별대우함으로써 일시적으로 특정 매체에 타격을 가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럴 경우 민주주의의 메커니즘 자체가 흔들려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안정적인 존립기반까지도 위협한다.

이런 일련의 사실을 감안하면 광고는 단순한 정보 제공의 차원을 뛰어넘는 일임을 금방 알 수 있다. 광고는 광고주가 하는 것이지만 광고주의 이익에만 집착하기보다 공공성을 해어야 한다. 단기적 효과에 집착하기보다 거시적인 해안을 가지고 광고를 집행해야 한다.

산자와 소비자, 치자와 피치자가 원활하게 소통하고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다. 광고가 광고주 자의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988년 9월에 광고주협회 창립을 사실상 주도해 독자성을 보장한 것은 매우 현명한 일이었다.

특히 인사적인 일은 광고주협회가 소비자 보호단체와 공동으로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 시상제도를 만들어 상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광고주협회는 또한 환경부와 함께 '환경상'을 만들어 시상하기도 한다.

이런 일련의 활동을 통해 광고주협회는 광고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가 아니라 광고주와 소비자를 아우르고, 아울러 환경문제까지도 숙고하는 존재로 거듭났다. 그런 일은 궁극적으로 광고주인 경제인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일이기도 하였다.

고 있다. 광고주협회의 자율성을 무시하여 광고주협회를 경제인연합회 직속기구로 환원하고 경제인단체 부회장이 자동적으로 광고주협회 회장을 맡게 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할 때 스스로 신자유주의를 표방했다.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일은 시장의 논리에 맡기겠다는 것이었다. 이런 신자유주의가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철학이라면 광고주협회에 대한 자질구레한 간여는 접어야 한다.

정부가 전경련을 부추겨 광고주협회를 위축시키거나 사실상 해체하려는 것은 신자유주의와는 맞지 않는 하치하책(下下策)이다. 다시 1988년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전경련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과 어떤 관계인지를 천하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발상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5·18 30주년 행사 가치 재정립 제기돼야

5·18 30주년 기념행사가 모레부터 본격적으로 맞을 올린다. 올해 기념행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한 세대를 맞은 역사적 의미와 민주·자유정신의 가치가 절실한 시대적 의미를 더해 그 어느 때보다 남다른 수밖에 없다.

기념행사위원회가 정한 5·18 30주년 행사 슬로건은 '달리는 오월의 함성, 보이는가 민중의 햇볕'이다. 결국, 5·18 민주화운동의 가치 재정립과 오월정신 계승, 그리고 시민참여가 이번 5·18기념행사의 핵심인 것이다.

5·18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많이 바뀌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은 민주주의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건으로 '광주민주화운동'(28.9%), '4·19'(26.3%), 등의 순으로 꼽았다.

순이었다. 이는 5·18에 대한 국민의 의식과 시각이 점차 바뀌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5·18 민주화운동을 폄하하는 세력이 엄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5·18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오월정신을 훼손하는 일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기념행사위원회가 정한 5·18 30주년 행사 슬로건은 '달리는 오월의 함성, 보이는가 민중의 햇볕'이다. 결국, 5·18 민주화운동의 가치 재정립과 오월정신 계승, 그리고 시민참여가 이번 5·18기념행사의 핵심인 것이다.

80년 역사의 노안·고막원驛 폐쇄 안 된다

80년 동안 나주지역 주민들의 운송수단이 돼온 노안역과 고막원역이 역사 속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에 따르면 노안역과 고막원역이 2000년대 들어 열차 이용객이 크게 줄어들어 오는 7월부터 폐쇄할 예정이다.

노안역의 경우 하루 평균 열차 이용객이 2006년 7명에서 2007년~2008년 1명, 2009년에는 0.8명으로 줄어들고, 고막원역은 2006년 13명에서 2007년~2008년 6명, 2009년 5.7명으로 감소해 사실상 역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발전은 위해서는 역을 존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는 주민들의 이같은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광주시가 나주, 담양, 장성, 화순을 아우르는 도시철도를 계획하고 있고 나주에 혁신도시가 들어선다면 두 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이들 역의 이용객이 줄어든 것은 철도공사가 호남선 복선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역사(驛舍)의 접근성을 떨어뜨린 게 원인이 크다. 눈 앞의 경제는 리만 앞세워 80년 된 역을 폐쇄하겠다는 것은 선부터 판단이 아닐 수 없다. 1930년 문을 연 노안역과 고막원역은 철도로 유일한 교통수단으로서 일제와 해방, 6·25, 그리고 60년~80년대를 거치는 동안 수많은 애환과 추억이 스며든 곳이다. 철도공사는 나주를 고향으로 둔 출향민들에게 '추억의 여정' 등 이벤트 행사를 열어 역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음부즈맨 칼럼

이병우



흔히 역활한 일을 당했을 때 "길을 막고 물어보자"고 한다. 그리고 "동네 사람답, 내 말 좀 들어 보소"라고 외친다. '나'보다 '우리'를 중시하는 우리나라 특색인 정서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예로부터 공감 형성을 무척 중시해왔다.

지역민의 관심 또한 매우 높다. 이러한 중요한 기사를 광주일보에서 2단 9cm 단신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차제에 우리나라 우주 기술에 대해 독자에게 자세히 알려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 보소"

어진 듯하다. 신문에 내면 되기 때문이. 그래서 논쟁의 결정적 증거로 신문에 난 기사가 인용되기도 한다. 다양한 매체가 등장하여 그 강건한 위치가 약간 흔들리기는 하지만 여전히 신문은 여론을 주도하고 중심을 잡아주는 중심 매체이다. 하지만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바뀌었다. 정보는 유니버시알 대회에서 이제는 쌍방향으로 흐른다. 프로슈머의 트렌드는 언론분야에서 활발하다.

이제는 쌍방향으로 흐른다. 프로슈머의 트렌드는 언론분야에서 활발하다. 여론형성이란 공감을 누가 많이 하나에 달려 있다. 광주일보가 이 지역의 대표적인 공감매체로 역할을 계속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당부한다.

먼저 이 과정에서 열리는 굿직한 세계 대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광주일보가 양장 서책으로 말리는 유니버시알 대회부터 여수 엑스포대회, FI대회에 이르기까지 많은 국제 대회가 예정돼 있다. 이런 국제행사는 우리 고향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지자체 관련 기사도 늘 뉴스지만 이런 대회에 관해 더 많은 관심을 보여줬으면 한다.

4월 20일 '나로호 발사 6월 9일 오호 5시'라는 기사를 2면 중간 부분에 2단 기사로 게재했다. 나로호 발사는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고 더구나 우리 지역인 고향 나라도에서 발사되기 때문에 본래 문을 닫는 어린이집, 누가 봐도 문재 있다. 이렇게 우리의 실생활과 관련된 기사를 다양한 각도에서 풀어 준 것은 무척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한다.

파출소 전환 인력부족 지역경찰서 지원근무로 해결

광주 경찰은 지난 1월 기존 지구대 체제를 파출소 체제로 전환했다. 13개 지구대가 폐지되고 26개 파출소가 신설됐다. 이 때문에 파출소 순찰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따라서 광주 경찰은 부족한 순찰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광주경찰청 및 5개 경찰서 소속 내근 직원 1천600여 명이 지구대 7개소와 파출소 27개소에 치안요구를 집중되는 야간시간대에 2~4명씩 배치돼 지역경

찰과 함께 도보순찰 및 112 순찰을 하는 지원근무를 시행하게 됐다.

이러한 지원 근무제도는 파출소와 경찰서 간의 업무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근무인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파출소 직원뿐 아니라 치안력 부족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주민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광주일보 제 4기 독자위원·보혜양조 이사>

기고

정병재



미국 리처드 올리버 교수는 바이오테크(생물공학)는 다가오는 제4의 물결로 '바이오테크 혁명의 시대가 오고 있다', '21세기 중반이 되면 모든 기업이 바이오기업이 될 것이다'고 예고했다. 바이오테크가 미래 지구촌의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단적으로 언급한 대목이다.

바이오테크놀러지를 소재로 한 영화로는 쥘리아 공원, 가타카, 스파이더맨, 엑스맨, 스피드즈, 6번째 날(The 6th Day) 등이 있다.

전남의 미래, 바이오산업이 대안이다

2002년 8월에 전남 생물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한 이후 나주 식품산업연구센터, 화순 생물약연구소, 장성 나노 바이오연구센터, 곡성 생물방제센터, 완도 해양바이오 산업센터, 장흥 천연자원연구원, 한방산업진흥원 등 7개 특화사업을 구축해 전국에서 가장 다양한 생물산업 지원 인프라를 보유하고 100여명의 전문 연구인력을 확보해 생물산업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특히, 화순 바이오메디칼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작년 세계적으로 신종플루가 유행할 때 화순 녹십자사에서 신종플루 백신 3,000만 도즈를 생산·보급해 전국적

으로 큰 혼란 없이 위기를 넘긴 바 있다. 화순 녹십자사는 계절 독감 백신, 신종플루 백신, 결핵 백신 등 백신산업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더 나아가 지난 4월 초에 신종플루 백신 생산방식을 유정란 배양백신에 세포배양방식과 병행하는 화순공장 증설계획을 발표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화순 의약산업 내에 동물을 이용한 국내 최고 전문상

시험 평가기관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KTR) 산하 '김포 안전성 평가본부(KLP)' 유치에 확정됐다는 사실이다. KTR 김포 안전성 평가본부가 이전하게 되면 전남의 식품, 천연자원 추출물, 바이오의약품 등 1,000여 개 기업을 포함한 호남권 3,000여 개 기업이 품질인증과 해외수출을 위한 해외 시험인증 등을 전남에서 할 수 있어 권역 내 바이오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이와는 별도로 유럽 3대 연구기관 중 하나인 생물의약품 분야 연구기관 독일 프라운호퍼 IME연구소 유치를 추진중에 있다. 화순은 바이오메디칼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명실공히 국내 최대의 백신산업 매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물산업은 당장의 성과를 나타내기는 어려운 분야이다. 바이오(생물)산업 육성이 세계적 트렌드가 되고 있다. 전남의 미래 대안으로 바이오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한다면 생물산업이 전남도의 차세대 핵심 전략산업으로 우뚝 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 경제과학국장>

자전거 도난방지·이용 활성화 위해 등록제 도입 서둘러야

요즘 고유가 여파로 자전거 출퇴근족이 늘고 있지만 도난, 보살에 대한 예방책은 사실상 전무하다. 자전거는 보통 몇십만 원짜리부터 1~2백만원 짜리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각 구청의 자전거보관대는 물론이고 지하철역 보관대, 아파트 앞, 심지어 기업체 내부까지 자전거 도둑이 많아 불안해서 가지고 다닐 수가 없다. 자전거 보살을 막기 위해서는 자전거등록제가 가장 좋은 방법일 것으로 보인다. 자전거등록제는 자전거를 구입하거나 인계받은 주민이 관련 구청 등에 본인의 신분확인과 함께

자전거마다 고유한 차대번호(Serial Number)를 등록하는 제도다. 구청에서는 접수된 정보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자전거 이용자를 파악하고 일반 주민들에게 중고 자전거를 거래하기 전에 반드시 차대번호 조회를 통해 소유자 확인을 해주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부 구청이나 자치단체가 시행 중이지만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이 같은 제도 도입을 통해 훗날 자전거를 되찾아오기 약속하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 <김정주·광주시 북구 운영동

無等鼓

지난달 29일 천안함 사건 희생 장병의 영결식이 치러졌다.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 전 국민의 애도 속에 희생자들의 장례가 끝났지만 사건의 전말은 아직도 아리송하다.

초계함이 톨로 잘려 바닷속으로 빠져 버린 것은 세계적으로 흔치 않은 일이다. 이 같은 미증유의 사건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문은 커져만 가고 있다. 이번 사건 초기부터 이

수중무기 공격 증거물이라는 견해가 나오면서 본격적인 논란이 시작됐다.

정부는 이를 물질이 여러 등 수중무기의 파편으로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유보적인 입장지만 사건의 중대성 때문에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희생 장병의 장례를 마친 정부는 천안함 사건의 '스모킹 건'(smoking gun)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아서 코넬 독일의 유명한 탐정소설 '셜록 홈즈' 시리즈 중 '글로리아 스콧'(The Gloria Scott)에서 연유한 스모킹 건은 범 죄의 결정적 증거를 의미한다. 말뜻 그대로 용의자의 총구에서 연기가 피어오른다면 이는 변명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

단 1mm에 불과할 지라도 천안함 사건의 스모킹 건은 향후 한반도 정세를 가늠할 뜨거운 변수다. 구체적인 발생 원인을 밝히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천안함 사건은 지금까지 시작인 셈이다. <박치경 시회1부장 unipark@kwangju.co.kr>

'스모킹 건'



Table with 2 columns: Left side contains '光州日報' and right side contains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subscriptions and advertising.